

### ■ 이순철 코치가 말하는 오타니 공략법 “킥모션일때 제구 난조 테이블세터 출루 중요”

주자 있는 상황에서 흔들리는 약점 파악



최고 시속 160km의 빠른 공. 2015년 일본프로야구 퍼시픽리그에서 22경기에 선발등판해 15승5패, 방어율 2.24에 완봉 3번을 포함해 완투 5번을 기록했다. 160.2이닝 동안 삼진을 196개나 잡고, 100안타 46볼넷만 내렸다. '프리미어 12' 일본대표팀의 에이스 오타니 쇼헤이(21·니혼햄·사진)의 성적표다.

8일 한국과의 프리미어 12 개막전에 선발등판할 오타니는 올 시즌 621명의 타자를 상대했는데, 셋 중 한명은 삼진이었다. 그만큼 공의 위력이 압도적이다. 일본을 이기려면 결국 오타니를 상대로 얼마나 점수를 뽑느냐가 관건이다.

오타니와 싸워야 하는 타자들을 이끌고 있는 대표팀 이순철 타격코치는 매우 흥미로운 말을 꺼냈다. “오타니도 인간이다.” 이 코치는 “신은 인간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완벽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타니는 장점이 매우 많은 투수지만, 약점도 있었다. 워낙 공이 빠르고 변화구도 위력적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존 구석구석을 찌르기 시작하면 너무나 허망하게 유인구에 당할 수 있다. 영상을 보니 제구력도 매우 좋아졌다. 단,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와인드업으로 던지는 매우 특이한 장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와인드업은 투수가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공을 던질 수 있는 동작이지만 릴리스 타임이 길기 때문에 주자가 있을 때는 도루를 허용하기 쉽다. 대부분의 투수는 주자가 있으면 슬라이드스텝(킥모션)으로 견제를 하고 투구를 한다.

이 코치는 “오타니는 와인드업으로 잘 던지다가 슬라이드스텝 때 제구가 갑자기 난조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빨리 제 모습을 찾기 위해 과감히 주자를 신경 쓰지 않고 와인드업으로 던지더라. 그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 종종 있다는 얘기다. 발 빠른 테이블세터가 출루해 오타니가 중심타선을 슬라이드스텝으로 상대하게 한다면, 꽤 흥미로운 장면이 그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 일본의 마운드 운용 ‘전국시대 병법’ 쓴다

노부나가 '3단 공격' 착안해 투수진 구성

'프리미어 12'에 출전하는 일본은 5~6일 푸에르토리코와 2차례 평가전을 치르며 마지막 점검을 한다. 8일 한국과의 대회 개막전을 앞두고 있는 일본대표팀의 마운드와 타선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닛칸스포츠는 5일 일본대표팀 고쿠보 히로키 감독의 마운드 운용 전략을 보도하면서 '3단 공격'이라고 표현했다. 총 13명의 구성원 마운드를 선발 4명, 제2선발 5명, 구원 4명으로 운용한다는 뜻이다. 평소 '수호지' 등 역사소설과 무사도에 관심이 많은 고쿠보 감독이 일본 전국시대의 오다 노부나가 병법에 착안해 이 같은 전략을 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선발 로테이션은 8일 한국전 선발 오타니 쇼헤이(니혼햄·15승5패, 방어율 2.24)를 필두로 2차전부터 마에다 겐타(히로시마·15승8패, 방어율 2.09)~다케다 쇼타(소프트뱅크·13승6패, 방어율 3.17)~스가노 도모유키(오미우리·10승11패, 방어율 1.91)로 돌아간다. 선발투수가 난조를 보일 경우 '제2선발'인 5명의 투수를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경기 후반 4명의 필승조를 대기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마무리투수로는 올해 소방수로 변신해 63경기에서 3승2패33세이브, 방어율 0.87을 기록한 마쓰이 유키(라쿠엔)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전을 치른 뒤 변동 가능성도 있지만 타선도 대체적으로 밀그램이 드러나고 있다. 테이블세터는 1번 아키야마 쇼고(세이부)~2번 사카모토 하야토(오미우리)로 꾸린다. 특히 아키야마는 올 시즌 일본프로야구 시즌 최다안타 신기록인 216안타를 작성한 인물이다. 당초 야마다 테스토(야쿠르트)~야나기타 유키(소프트뱅크)로 이어지는 '트리플 스리(3할 타율-30홈런-30도루)' 테이블세터를 구성했지만, 야나기타의 부상으로 포기했다. 그 대신 야마다는 3번에 포진한다. 4번타치는 타격감이 좋은 나카타 쇼(니혼햄)가 유력한 가운데 2년 연속 30홈런을 기록한 나카무라 다케야(세이부)가 경쟁한다. 쓰쓰고 요시토모(요코하마), 마쓰다 노부히로(소프트뱅크) 등이 뒤를 받칠 예정이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 단기전 변수만 넘는다면...최후엔 한일전

## 프리미어 12 전망

한·일·대만 3개국만 최고 전력으로 참가  
미국·중남미 마이너리거로 엔트리 구성  
전력분석 자료 부족해 예상밖 복병 주의

결국 한국과 일본의 싸움일까. 야구의 올림픽 정식종목 부활을 위해 출범한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이 개최하는 첫 대회, '프리미어 12'가 8일 막을 올린다.

프리미어 12는 야구월드컵이 2011년 폐지된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대회다.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주관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있지만, WBSC는 국제대회 확대를 외치며 대회를 창설했다. 시니어 대회를 비롯한 모든 연령대의 국제대회 결과를 토대로 WBC를 상정해 1위부터 12위까지 참가하고, WBC를 피해 4년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했다.

WBC를 개최하는 MLB 입장에서 탐탁치 않은 대회다. 결국 MLB 사무국은 40인 로스터 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불허했다. 미국과 중남미 야구 강국들은 마이너리거들로 엔트리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대회 개최 전부터 겁이 빠지는 모양새다.

대회 준비가 잘 됐는지도 의문이다. 세계랭킹 12위인 멕시코는 대회 직전까지 참가가 불투명했다. 13위인 파나마에게 대회 출전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파나마 역시 시간 부족으로 난색을 표했다. 멕시코는 자국내 의견충돌로 최종엔트리를 제출하지 않다가 개막 3일 전인 5일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이 대회를 앞두고 스페르카피트너로 택한 '아마추어 최강' 쿠바도 4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일시(한국시간)	대진	장소
11.8(일) 19시	개막전(vs 일본)	일본 삿포로돔
11.11(수) 19시	예선 라운드(vs 도미니카공화국)	대만 타오위안구장
11.12(목) 13시	예선 라운드(vs 베네수엘라)	대만 타오위안구장
11.14(토) 19시	예선 라운드(vs 멕시코)	대만 티엔무구장
11.15(일) 19시	예선 라운드(vs 미국)	대만 티엔무구장
11.16(월) 미정	8강전	대만(미정)
11.19(목)~20(금) 미정	4강전	일본 도쿄돔
11.21(토) 19시	결승전	일본 도쿄돔

열린 '2015 서울 슈퍼시리즈' 1차전에서 0-6으로 한국에 완패하며 전력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한동안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한 '망명'이 줄을 이은 여파일까. 이날 등판한 6명의 투수가 던진 공 중 최고구속은 144km에 불과했다.

발췌부터 이번 대회는 한국과 일본의 싸움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북중미, 남미 국가들 모두 마이너리거 혹은 한물 간 자국리그 선수들로 대표팀을 구성했다. 개최국인 일본과 대만, 그리고 야구의 올림픽 재진입을 바라는 한국은 최후엔 땀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

선을 다해 대표팀을 꾸렸다. B조에 속한 한국은 8일 일본 삿포로돔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11일과 12일 대만에서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와 예선라운드를 펼친다. 하루 휴식 후 14일과 15일에는 멕시코와 미국을 상대한다. 6개국 중 네 팀이 올라가는 8강 진출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판승부인 8강전에선 A조 1~4위와 B조 4~1위가 맞붙는다. 낮은 순위로 8강에 진출한다면, A조의 강팀인 대만과 쿠바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2013년 제3회 WBC에서 일격을 당했던 유럽 최강 네덜란드도 만만치 않은 상대다.

방심할 수는 없다. 단기전은 변수가 많다. 젊은 마이너리거 등 '흙 속의 진주'를 무시할 수도 없다. 일본과 대만에 비해 전력분석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2013년 WBC 예선 탈락 같은 전례를 반복할 수도 있다. 김민식 감독 역시 당시를 떠올리며 "앤드루 존스(네덜란드)처럼 알려진 타자도 선구안이 나빠져 유인구로 충분히 승부할 수 있다고 봤는데 맞았다. 또 생소한 타자들 중에 한 방을 갖춘 선수들이 있다. 카운트를 잡으려 들어갔다 크게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nirvana@donga.com



야구대표팀이 '2015 WBSC 프리미어 12' 출격 준비를 마쳤다. 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쿠바와의 '2015 서울 슈퍼시리즈' 2차전을 앞두고 대표팀 선수들이 한데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새 얼굴 이대은의 서먹함 없애준 두산맨들

신일고 2년 선배 김현수와 친분  
김재호 "日 스프링캠프 때 만나"

이대은(26·지바롯데·사진)이 한국대표팀 마운드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이대은은 4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쿠바와의 '2015 서울 슈퍼시리즈' 1차전에서 4이닝 퍼펙트를 기록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성인이 된 뒤 처음으로 선 한국무대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대표팀 마운드의 키를 이대은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우완정통파 투수가 부족한 대표팀 마운드에도 서광이 비쳤다.

사실 이대은의 실력은 어느 정도 증명됐지만, 대표팀 적응이 가장 큰 관건이었다. 이대은은 신일고 졸업 직후인 2007년 시카고 컵스에 입단한 뒤 올해 일본프로야구 지바롯데에서 뛰었던 만큼, 성년이 된 뒤에는 한국야구와 인연이 없다. 이에 따라 그는 대표팀에 합류한 직후 "친한 사람이 없어서..."라며 겸연쩍어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색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야구라는 공통점을 지닌 선수들과 금세 친해졌다.

특히 3일 대표팀에 합류한 8명의 두산 선수들은 이대은에게 큰 힘이 됐다. 같은 신일고 출신 김현수는 2년 선배다. 대표팀에서 유일하게 친분이 있는 선수도 김현수였다. 이뿐이 아니다. 이대은은 두산 선수들과는 스프링캠프에서 한 차례 인연을 맺기도 했다. 김재호(두산)는 "일본 캠프를 치를 때 이토 쓰토무(지바롯데) 감독님과 식사를 했는데, 당시 (이)대은이도 있었다"며 "그 인연이 대표팀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귀띔했다.

이토 감독은 2013시즌 두산에서 수석코치로 재직했다. 이토 감독은 현재 지바롯데를 이끄는 사령탑이지만 두산과의 인연을 잊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온 두산 선수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 같은 한국인 투수 이대은도 초대됐다. 김재호는 "(이)대은이가 착하다"며 "선수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대은도 "이제 적응은 마쳤다. 선수들이 다 잘 해주다"며 활짝 웃었다. **고척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이대은은?  
▲생년월일=1989년 3월 23일 ▲키·몸무게=189cm·90kg(우투좌타) ▲출신교=역삼초~경원중~신일고 ▲프로 경력=신일고 3학년 때인 2007년 시카고 컵스와 계약(계약금 발표액 81만달러), 2008년 마이너리그 데뷔, 2014시즌까지 마이너리그 통산 40승37패·방어율 4.08(메이저리그 경력 없음), 2015년 지바롯데 입단 ▲2015시즌 성적=9승8패(119.2이닝)·방어율 3.84

### 정근우-김재호, 대표팀 키스톤콤비 문제 없어요

합동훈련시간 부족해도 쿠바전 손발 척척  
김광수 코치 "경기 치르면서 더 좋아질 것"

큰 경기에서 잘 던지고 잘 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수비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대량 실점의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2015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 12'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대표팀 코칭스태프도 개개인의 기량보다 수비를 강조하고 있다.

수비는 팀플레이다. 아주 미묘한 차이로 호수비가 실책, 실책이 호수비가 될 수 있다. 같

은 팀에서 오랫동안 함께 호흡을 맞춘 선수들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각 팀에서 모인 대표팀은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이번 대표팀은 지난달 26일부터 소집돼 훈련해왔지만, 한국시리즈를 치른 두산과 삼성 선수들은 3일에야 합류했다. 제대로 손발을 맞출 시간이 없었다. 선동열 대표팀 투수코치는 "합동 훈련한 시간이 이틀밖에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표팀 키스톤콤비 정근우(33·한화)와 김재호(30·두산)도 손발을 맞출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우려는 기우였다. 이들은 4일 열



정근우 김재호

린 쿠바와의 '2015 서울 슈퍼시리즈' 1차전에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날 김재호는 2회초 무사 1루서 요스바니 알라르콘의 유격수 땅볼을 잡아 스타타가

떨었던 1루주자를 잡기 위해 2루수 정근우에게 글러브로 토스했다. 송구가 다소 낮았지만 정근우가 이를 잡아내며 선행주자를 아웃시켰다. 3회 무사 1루선 교과서에 나올 법한 완벽한 병살플레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김광수 대표팀 수비코치는 5일 "대표팀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모인 곳이다. 기량에 대해 평가할 부분이 없다"며 "다만 수비는 리듬과 타이밍이다. 선수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합을 맞추는 게 중요했는데, 정근우와 김재호는 문제가 없다.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기를 계속 치르면서 서로의 스타일을 파악하면 더 좋아질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고척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